

“종이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첫 날

실물증권 위·변조,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 비효율 제거 조국 법무부장관 축사 “공정경제 기반 갖출수 있게 할 것”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 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라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도에 따라 실물 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국민은행·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자들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한 질문을 받았으나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제지표

코스피	↑	2,057.84(+0.42)
코스닥	↑	636.47(+0.97)
원·달러·환율	↓	1,184.70(-0.82)
금리(국고채 3년)	↑	1.26(+1.61)

우체국예금보험 글짓기 대회 전남지방우정청, 내달 11일까지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승원)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

의 정서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제27회 우체국예금보험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우체국', '우리동네우체국', '미래우체국', '사랑·우정·행복' 4가지 주제 중에서 수필, 일기, 시와 같은 생활문 형태로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 3명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5명에게는 우정사업본부장상장과 시상금 50만원, 우수상 30명에게는 우정공무원교육원장상장과 시상금 20만원, 장려상 150명에게는 지방우정청장 상장과 시상금 10만 원이 수여되며 지도교사상 18명에게는 시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신청방법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또는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www.kpoti.koreapost.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으며,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 18일 우정사업본부 및 우정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뉴스룸24(www.postnews.kr),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현대차, 전기버스 운영도 스마트하게!

전기버스 전용 원격 관제 시스템 KT와 협업, 시범장착·확대 예정

현대자동차(주)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차량 운행 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한 전기버스 전용 원격 관제 시스템(Fleet Management System, FMS)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원격 관제 시스템 적용으로 실시간 전기버스 관제를 통한 효율적인 배차 및 경로 등 체계적인 전기버스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차량 고장 안내, 법규 위반 예방 등 실시간 안전 운전 유도를 통한 신속한 운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KT와 커넥티드카 플랫폼 기술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번 원격 관제 시스템은 △전기버스 전용 전기차량 관제 △위치 관제 △디지털 운행 기록계(Digital Tacho Graph, DTG



배터리 충전 현황, 배터리 상태, 주행 가능 거리, 차량 고장 안내 등 전기버스의 주요 기능이 관제 시스템에 연동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본 사진은 차량의 고장 안내 기능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 /현대차 제공

관제 등 다양한 기능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버스 전용으로 마련된 '전기차 관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배터리 상태, 주행 가능 거리 등 전기버스의 주요 기능을 관제 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고지에서 통합적으로 차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차량 별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관제'는 유·무선 통신망으로 확

대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배차 시간 조정, 사고 발생 위치 확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원격 관제 시스템을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 14대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에 도입되는 전기버스 차량 전량에 시범 장착 예정이며 이를 사양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zkj0000@



명절 피로 안마의자로 풀어오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안마의자매장에서 고객이 안마의자에 앉아 시연을 받아보고 있다. 안마의자는 명절 이후 명절 증후군을 달래줄 상품으로 안마의자와 허그체어 그리고 소형안마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바디프렌드매장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제품 구매시 추첨을 통해 리플 라우드 프레임과 천연매트리스를 증정하며 안마의자 쿨 제품 구매시 모바일 쿠폰 주유상품권 30만원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풍, 진도, 완도, 장성)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직통)
팩스: 062)227-0084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

전남도민일보

국토의 실핏줄
생강을 살립니다

전남도민일보